

남여 대학생들의 부모기에 대한 인식과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Perception of Parenthood and the Needs for a Pre-Parental Educational Program for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이수기 · 박희숙*

목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 ·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Lee, Su Ki · Park, Hee Suk*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Mokpo Catholic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parenthood and their need for pre-parental educational program. Responses of 579 university students in 5 universities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Data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d Pearson's chi squared test. Results showed that (1) systematic and pre-parental education may increase opportunities for university students to prepare parent and child rearing skills. (2) Any pre-parent educational program developed should cover practical and such as communication skills, child-rearing techniques and ways of disciplining children. In this way an educational program could provide university students suitable guidance and give them a positive and proper attitude toward parenting should they become parents in the future.

Keywords : parenthood, pre-parental education, pre-parental program

I. 서론

현대사회로의 빠른 전이로 인해 산업화와 핵가족화는 가속화되었고 가정의 전통적인 가치는 변화되었다. 전통 사회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특별한 교육이나 노력 없이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등에 관해 접할 기회가 많았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양육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고 부모세대로부터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혼과 별거에 의하여 분리된 가정, 청소년이 부모가 된 가정, 한부모와 생활하는

가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이병래, 1991; 전선영, 2001; Berk, 2002) 청소년이 한쪽 부모와 생활해야 함으로써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적절한 역할 모델을 가질 기회는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들은 예비부모들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어 실제로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자녀양육을 힘겨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Groom(1999)은 예비 부모교육은 개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개인들이 더 만족스럽고 성취적인

* Corresponding author: Park, Hee Suk
Tel: 041-850-8965, Fax: 041-850-8960
E-mail: heesukpark@kongju.ac.kr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인간관계,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예방적인 접근법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부모 역할이나 자녀양육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역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부모가 되기 이전에 확립해야 한다. 이미 한 가정을 형성하고 부모가 되어 버린 후의 교육으로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므로 부모가 되기 이전, 가정을 형성하기 이전인 청년기에 부모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부모가 되기 이전의 예비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됨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바람직한 양육관과 양육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며 사회에 만연한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부모가 되기 이전에 장차 부모가 되었을 때 수행해야 할 부모 역할에 대한 예방적 의미의 예비부모교육은 반드시 요구된다.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미혼모 등의 사회문제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예비부모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점차 대상 연령이 낮아지며 정규 교육기관과 더불어 주변사람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Doetsch, 1990; Roundtree, 1987; Weinstein, 1994). 또한 건전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을 예측할 수 있는 청소년 요인을 분석한 연구(Groom, 1999), 비부모교육과 관련된 정책연구(Hanson *et al.*, 1994)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이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효율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의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중·고등학생에게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재 극소수의 NGO단체에서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몇몇 고등학교에서 예비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굿데이버스, 수능 치른 고3 15만여명 대상 예비부모교육”, 2007), 이는 일회성 교육으로 절대적인 시간과 기회의 부족으로 그들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비부모교육은 정규교육기관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때 훌륭한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이병래, 1991) 특히, 청년기 대학생

은 인간발달에 있어 정체감을 형성하고 친밀감을 구축해 나가는 시기로 청년기에 이르면 무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던 자아개념이 의식적인 노력으로도 형성되어질 수 있고 아동기까지의 모든 발달과제들이 재통합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상을 정립하게 된다(허혜경, 김혜수, 2002). 또한, 대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성숙해 있고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결혼에 대한 욕구도 더욱 구체화되어 가기 때문에 예비 부모교육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4개의 4년제 대학에서는 예비부모교육을 교양강좌로 채택하고 있다(김정미, 2005).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예비부모교육은 그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대상자의 발달적 요구, 심리적 요구가 다르고 현재 삶에서 느끼는 필요와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의 독특한 사회적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예비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예비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어 예비 부모교육의 실태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강희은, 2002; 김지은, 2000; 나은경, 1993; 유경애, 2003; 이정은, 2006; 이재연, 김경희, 1998; 정은숙, 2002; 최양미, 이태섭, 1999; 황운세, 2005; 허희순, 2003),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김정미, 2004, 2005; 김현정, 2002; 신혜영, 1997; 이병래, 2003; 전선영, 2001) 및 부모놀이치료나 집단 상담 교육의 효과(조희숙, 2004; 장미경, 임원신, 2004)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시 예비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요구도는 어떠한지 즉 남녀의 성별에 적합한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부모됨의 동기에는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힌 Hoffman과 Maris(197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애정적, 유대적 동기에서 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연구(유안진, 신양재, 1993)에서도 남성은 부모됨의 동기로 가문 계승, 사회적 지위 확보, 자기 연장의 목적을, 그리고 여성은 창조 성취적 목적을 더욱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도에 관한 내용은 아닐지라

도 부모기와 부모됨에 대한 인식에 있어 남여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남여에 따른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발달에서 정체감을 형성하고 친밀감을 구축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장차 부모가 되었을 때 수행해야할 부모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장차 부모가 될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역할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부모 교육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남여 대학생들의 부모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남여 대학생의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와 C도에 소재한 4년제의 C, J, H₁, M, H₂대학 5개 대학의 남학생 298명과 여학생 281명, 총 5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무선으로 배부하고, 이 중 총 623부(89%)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표기가 누락되거나, 중복 표기하며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설문지 44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자료로 활용한 설문지는 579부였다. 연구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학생 시기가 성인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의 시기로 결혼과 부모됨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며 부모역할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며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은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설문지로서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성된 예비 설문지는 대

학생 20명에게 설문에 응답할 때 이해되지 않는 문항이나 문항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여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대학에서 부모교육 강의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 3인과 관련전문가 2인에게 안면 타당도를 구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부모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9문항,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19문항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13문항과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요구도’에 관한 문항 31문항으로 총 79문항이었다. 설문문항 중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요구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971로 확인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영역과 신뢰도는 다음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영역과 신뢰도

영역	하위내용	문항수	신뢰도
부모기에 대한 인식	결혼선택여부	1	
	부모가 되기 위한 제반조건	1	
	자녀의 수	1	
	자녀의 성에 대한 태도	1	
	부모가 되고자하는 동기	1	
	자녀양육 책임	1	
부모기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	1	
자녀양육시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	2		
부모와 자녀양육에 대한 통념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19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13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내 용에 대한 요구도	자기자신에 대하여	6	.971
	가족에 대하여	5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하여	5	
	의사소통에 대하여	3	
	자녀양육방법에 대하여	7	
	성교육에 대하여	5	
계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기에 대한 인식과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의 요구정도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수집한 자료들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χ^2 검증과 t 검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기에 대한 인식

1) 부모가 되기 위해 선택해야 할 제반 조건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이해는 부모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모가 되기 위해 선택해야 할 여러 조건인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선택, 선호하는 자녀의 수, 선호하는 자녀의 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보았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579명의 대학생 중 549명(94.8%)이 ‘결혼을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30명(5.2%)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남녀 대학생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혼을 할 것으로 선택하였고 결혼 선택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산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579명의 대학생 중 551명(95.2%)이 ‘자녀를 출산 할 것이다’라고 답하였고, 28명(4.8%)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남녀 대학생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선택하였고, 자녀출산 여부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선호하는 자녀의 수에 대해서는 2명(353명, 60.9%), 3명(126명, 21.8%), 1명(60명, 10.4%), 4명이상(40명, 6.9%)의 순으로 답하였으며 남녀대학생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녀를 2명 혹은 3명 출산하기를 선호하고, 자녀의 수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선호하는 자녀의 성에 대해서는 ‘성별은 상관 없다(439명, 75.8%)’,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76명, 13.1%)’, ‘딸은 꼭 있어야한다(64명, 11.1%)’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남녀대학생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녀출산시 특정 성의 자녀를 선호하지 않으며, 선호하는 자녀의 성에서도 남녀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결혼, 자녀출산, 자녀의 수, 자녀의 성

내 용	성별		전체	χ^2	n(%)
	남	녀			
결혼 선택여부	한다	280(94)	269(95.7)	549(94.8)	.922
	안 한다	18(6)	12(4.3)	30(5.2)	
자녀 출산여부	출산 한다	284(95.3)	267(95)	551(95.2)	.025
	출산하지 않는다	14(4.7)	14(5)	28(4.8)	
자녀의 수	1명	28(9.4)	32(11.4)	60(10.4)	4.049
	2명	182(61.3)	171(60.9)	353(60.9)	
	3명	63(21.1)	63(22.4)	126(21.8)	
	4명 이상	25(8.4)	15(5.3)	40(6.9)	
자녀의 성	성별 상관 없다	228(76.5)	211(75.1)	439(75.8)	3.454
	아들은 꼭 있어야한다	43(14.4)	33(11.7)	76(13.1)	
	딸은 꼭 있어야한다	27(9.1)	37(13.2)	64(11.1)	
		298(100)	281(100)	579(100)	

2) 부모기에 대한 인식

부모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되려는 동기, 자녀양육의 책임,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 자녀양육시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가 되려는 동기, 자녀양육시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문항은 중복응답하게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전체 대학생들은 부모가 되려는 동기를 이타주의적 동기(578명, 49.9%), 도구적 동기(266명, 23.0%), 숙명론적 동기(221명, 19.1%), 자아도취적 동기(93명, 8.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됨에 대한 동기 중 숙명론적 동기(남자 138명, 23.1%, 여자 83명, 14.9%, $p<.001$), 이타주의적 동기(남자 274명, 46.0%, 여

자 304명, 54.1%, $p<.01$), 자기도취적 동기(3명, 6.1%, 57명, 10.1%, $p<.05$)는 남여대학생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모가 되려는 동기

내용	성별		전체	χ^2
	남	녀		
숙명론적 동기	138(23.1%)	83(14.9%)	221(19.1%)	17.176***
이타주의적 동기	274(46.0%)	304(54.1%)	578(49.9%)	9.956**
자기도취적 동기	36(6.1%)	57(10.1%)	93(8.0%)	7.285*
도구적 동기	148(24.8%)	118(20.9%)	266(23.0%)	3.812
	596(100%)	562(100%)	1158(100%)	

* $p<.05$, ** $p<.01$, *** $p<.001$

<표 4>는 자녀양육의 책임 및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남여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내용이다.

<표 4> 자녀양육의 책임 및 어머니 취업에 대한 생각

내용	성별		전체	χ^2
	남	녀		
어머니 담당	0(0)	0(0)	0(0)	16.888**
아버지 담당	0(0)	2(0.7)	2(0.3)	
어머니 주로 아버지 일부	106(35.6)	59(21.0)	165(28.5)	
아버지 주로 어머니 일부	6(2.0)	8(2.8)	14(2.5)	
부모 똑같이	186(62.4)	212(75.4)	398(68.7)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17(5.7)	19(6.8)	36(6.2)	3.116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나 교육기관이 있으면 상관없다	27(9.1)	36(12.8)	63(10.9)	
엄마로서 할 일을 하면 상관없다	149(50.0)	125(44.5)	274(47.3)	
아빠가 협조하면 상관없다	97(32.6)	94(33.5)	191(33.0)	
모르겠다	8(2.7)	7(2.5)	15(2.6)	
계	298(100)	281(100)	579(100)	

** $p<.01$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해 대학생들은 ‘부모가 똑같이 책임을 진다(68.7%)’,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아버지가 일부 담당한다(28.5%)’, ‘아버지가 주로 담당하고 어머니는 일부 담당을 한다(2.5%)’, ‘아버지가 담당한다(0.3%)’의 순으로 대답하였으며, 남여 대학생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6.888, p<.01$) 이는 남여 대학생이 자녀양육의 책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하면 상관없다(274명, 47.3%)’, ‘아빠가 협조하면 상관없다(191명, 33.0%)’,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나 교육기관이 있으면 상관없다(63명, 10.9%)’, ‘자녀교육에 지장을 준다(36명, 6.2%)’, ‘모르겠다(15명, 2.6%)’의 순으로 대답하였으며, 남여 대학생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개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중복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310명, 26.77%),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244명, 21.07%), 자녀학습지도의 역할(209명, 18.04%), 자녀보호의 역할(152명, 13.13%), 훈육적 역할(134명, 11.57%),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 역할(55명, 4.74%), 경제적 지원의 역할(54명, 4.67%)의 순으로 대답하였으며, 남여대학생들 간에 어머니의 역할 중 경제적 지원의 역할($\chi^2=9.524, p<.01$) 과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 역할($\chi^2=31.191,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경제적 지원의 역할(418명, 36.10%), 훈육적 역할(204명, 17.61%), 자녀보호의 역할(200명, 17.27%),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185명, 15.98%), 자녀학습지도의 역할(54명, 4.66%),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 역할(53명, 4.58%),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44명, 3.79%)의 순으로 대답하였으며, 남여 대학생들 간에 아버지의 역할 중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chi^2=6.951, p<.01$), 자녀보호의 역할($\chi^2=8.771,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내용	성별		전체	χ^2	
	남	녀			
어머니의 역할	경제적지원의 역할	17(2.9)	37(6.4)	54(4.67)	9.524**
	자녀학습지도의 역할	105(18.1)	104(18.0)	209(18.04)	.198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 역할	48(8.3)	7(1.2)	55(4.74)	31.191***
	훈육적 역할	70(12.1)	64(11.1)	134(11.57)	.041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	156(26.9)	154(26.6)	310(26.77)	.554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	124(21.4)	120(20.7)	244(21.07)	.790
	자녀보호의 역할	76(13.1)	76(13.1)	152(13.13)	.178
아버지의 역할	경제적지원의 역할	213(36.8)	205(35.4)	418(36.10)	.157
	자녀학습지도의 역할	34(5.9)	20(3.5)	54(4.66)	3.150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 역할	33(5.7)	20(3.5)	53(4.58)	2.722
	훈육적 역할	100(17.3)	104(18.0)	204(17.61)	.756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	110(19.0)	75(13.0)	185(15.98)	6.951**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	20(3.5)	24(4.1)	44(3.79)	.689
	자녀보호의 역할	86(14.9)	114(19.7)	200(17.27)	8.771**
	596(100)	562(100)	1158(100)		

** $p < .01$, *** $p < .001$

3) 부모와 자녀양육에 대한 통념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의 부모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된 문항은 ‘정말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4평정척도 이었으며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말 그렇다’와 ‘그렇다’는 긍정으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는 부정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남녀대학생들 간의 성차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표 6>과 같다. 전체 대학생들은 ‘부모기에 대한 일반적 생각’의 전체적인 경향은 55.6%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44.4%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또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19개의 문항 중 응답자의 50% 이상이 반응한 항목은 긍정이 10개의 항목이었고, 부정이 8개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인 대학생들이 부모기를 비교적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녀 대학생들 간의 부모기에 대한 일반적 생각은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면 자녀는 올바르게 된다($\chi^2=4.753, p<.05$)’, ‘외자식은 외롭고 버릇이 없으므로 자녀를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된다($\chi^2=11.319, p<.01$)’, ‘문제아는 없다. 문제부모만 있을 뿐이다($\chi^2=9.969, p<.01$)’,

‘모든 부모는 성인이다($\chi^2=5.954, p<.05$)’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된 문항도 ‘정말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4점 평정척도 였으며,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말 그렇다’와 ‘그렇다’는 긍정으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는 부정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문항의 내용상 긍정의 반응은 성인중심적인 견해이며 부정의 반응은 아동중심적 견해로 해석된다. 자녀양육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남녀 간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표 7>과 같다.

전체 대학생들의 아동양육에 대한 일반적 생각의 전체적인 경향은 49.8%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50.2%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또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13개의 문항 중 응답자의 50% 이상이 반응한 항목은 긍정이 6개의 항목이었고, 부정이 7개의 항목으로 나타나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 높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인 대학생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부모기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내용	남		녀		전체		계	n(%)	χ ²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즐겁고 재미있다.	268(89.9)	30(10.1)	254(90.4)	27(9.6)	522(90.5)	55(9.5)	579(100)	.205	
아동은 늘 사랑스럽고 귀엽다	203(68.1)	95(31.9)	207(73.7)	74(26.3)	410(70.8)	169(29.2)	579(100)	2.151	
좋은 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한다.	255(85.6)	43(14.4)	249(88.6)	32(11.4)	504(87.0)	75(13.0)	579(100)	1.187	
자녀가 부모의 결혼생활을 향상시킨다.	263(88.3)	35(11.7)	255(90.7)	26(9.3)	518(89.5)	61(10.5)	579(100)	.953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면 자녀는 올바르게 된다.	230(77.2)	68(22.8)	237(84.3)	44(15.7)	467(80.7)	112(19.3)	579(100)	4.753*	
요즘 부모들은 예전 부모들 보다 부모역할을 잘 못한다.	161(54)	137(46)	144(51.2)	137(48.8)	305(52.7)	274(47.3)	579(100)	.449	
자녀가 없는 부부는 좌절되고 불행하다.	63(21.1)	235(78.9)	60(21.4)	221(78.6)	123(21.2)	456(78.8)	579(100)	.004	
외자식은 외롭고 버릇이 없으므로 자녀를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된다.	127(42.6)	171(57.4)	82(29.2)	199(70.8)	209(36.1)	370(63.9)	579(100)	11.319**	
문제는 없다. 문제부모만 있을뿐이다.	78(26.2)	220(73.8)	108(38.4)	173(62.6)	186(32.1)	393(67.9)	579(100)	9.969**	
모든 부모는 성인이다.	128(43.0)	170(57.0)	93(33.1)	188(66.9)	221(38.2)	358(61.8)	579(100)	5.954*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편익에 감사하고 있다	203(68.1)	95(31.9)	200(71.2)	81(28.8)	403(69.6)	176(30.4)	579(100)	.637	
자녀를 기르는 어려움은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 합리화된다.	200(67.1)	98(32.9)	193(68.7)	88(31.3)	393(67.9)	186(32.1)	579(100)	.163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충분히 쏟기만 하면 된다.	82(27.5)	216(72.5)	83(29.5)	198(70.5)	165(28.5)	414(71.5)	579(100)	.290	
편부모 가정은 문제가 있다.	102(34.2)	196(65.8)	87(31.0)	194(69.0)	189(32.6)	390(67.4)	579(100)	.702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로서의 임무는 끝난다.	56(18.8)	242(81.2)	53(18.9)	228(81.1)	109(18.8)	470(81.2)	579(100)	.000	
자녀가 성장하여 다 집을 떠나면 부모들은 허탈해진다.	179(60.1)	119(39.9)	176(62.6)	105(37.4)	355(61.3)	224(38.7)	579(100)	.402	
자녀들이 성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자라면서 말썽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238(79.9)	60(20.1)	233(82.9)	48(17.1)	471(81.3)	108(18.7)	579(100)	.888	
아동의 본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73(24.5)	225(75.5)	65(23.1)	216(76.9)	138(23.8)	441(76.2)	579(100)	.148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216(72.5)	82(27.5)	214(76.2)	67(23.8)	430(74.3)	149(25.7)	579(100)	1.021	
					6118(55.6)	4881(44.4)	11001(100)		

*p<.05, **p<.01

〈표 7〉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남		녀		전체		계	n(%)	χ^2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만일 아이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한다면 야단을 쳐서라도 반드시 고쳐주어야 한다.	274(91.9)	24(8.1)	260(92.5)	21(7.5)	534(92.2)	45(7.8)	579(100)	.068	
학교에 입학한 후 좋은 성적을 위해 미리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	161(54.0)	137(46.0)	164(58.4)	117(41.6)	325(56.1)	254(43.9)	579(100)	1.104	
아이는 부모의 종교와 가치를 따라야한다.	80(26.8)	218(73.2)	86(30.6)	195(69.4)	166(28.7)	413(71.9)	579(100)	.999	
나의 자녀는 돈, 명예 권력 중 하나라도 성취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	155(52.0)	143(48.0)	160(56.9)	121(43.1)	315(54.4)	264(45.6)	579(100)	1.415	
경쟁이 심한 사회이므로 결과야 어떻든 열심히 공부하게 해야 한다.	112(37.6)	186(62.4)	130(46.3)	151(53.7)	242(41.8)	337(58.2)	579(100)	4.479*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땅이나 재산을 처분해야한다	66(22.1)	232(77.9)	66(23.5)	215(76.5)	132(22.8)	447(77.2)	579(100)	.148	
아이는 부모가 하는 것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266(89.3)	32(10.7)	250(89.3)	30(10.7)	516(89.3)	63(10.7)	579(100)	.000	
나의 자녀는 주변사물에 흥미를 보이며 열심히 노는 아이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으면 한다.	84(28.2)	214(71.8)	90(32.0)	191(68.0)	174(30.1)	405(69.9)	579(100)	1.015	
만약 5세난 어린이에게 미술대회가 나갈 기회가 생기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238(79.9)	60(20.1)	226(80.4)	55(19.6)	464(80.1)	115(19.9)	579(100)	.029	
아이들은 보통 공부를 하기 싫어하므로 강제로라도 시켜야한다.	89(29.9)	209(70.1)	65(23.1)	216(76.9)	154(26.6)	425(73.4)	579(100)	3.359	
자녀의 생각이 옳지 못할 때는 부모의 생각대로 시켜야한다.	158(53.0)	140(47.0)	119(42.3)	162(57.7)	277(47.8)	302(52.2)	579(100)	6.600*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일단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79(26.5)	219(73.5)	66(23.5)	215(76.5)	145(25.1)	434(75.0)	579(100)	.704	
아이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 얼른 말려주어야 한다.	154(51.7)	144(48.3)	153(54.4)	128(45.6)	307(53.0)	272(47.0)	579(100)	.446	
					3751(49.8)	3776(50.2)	7527		

* $p<.05$

남여 대학생들 간의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 생각은 ‘경쟁이 심한 사회이므로 결과야 어떻든 열심히 공부하게 해야 한다($\chi^2=4.479, p<.05$)’, ‘자녀의 생각이 옳지 못할 때는 부모의 생각대로 시켜야한다($\chi^2=6.600, p<.05$)’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

대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요구정도를 하위영역별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표 8>과 같다.

먼저, 전체 대학생들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에 대한 요구 정도를 5점 평정척도로 평정한 결과 ‘자기에 대하여의 영역’의 하위내용을 ‘바람직한 결혼관(M=3.79, SD=.94)’,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M=3.79, SD=.98)’, ‘바람직한 자아인식 및 정체성(M=3.78, SD=.95)’, ‘성격유형 분석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M=3.67, SD=.93)’, ‘자신이 받은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M=3.56, SD=.88)’,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M=3.37, SD=.90)’의 순으로 답을 하였다. 남여 대학생들은 ‘자기에 대하여’의 하위영역에서 ‘바람직한 결혼관($t=-2.257,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기에 대하여’의 영역에서는 남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775, p>.05$).

〈표 8〉 예비 부모교육프로그램 내용 요구도

영역	내용	남		녀		전체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기에 대하여	인간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3.41	.91	3.32	.90	3.37	.90	1.182
	성격유형분석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	3.69	.93	3.64	.92	3.67	.93	.568
	자신이 받은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	3.52	.94	3.61	.81	3.56	.88	-1.161
	바람직한 자아인식 및 정체성	3.69	1.07	3.87	.81	3.78	.95	-2.257*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3.75	.99	3.83	.96	3.79	.98	-.996
	바람직한 결혼관	3.75	1.04	3.83	.82	3.79	.94	-.953
전체	3.64	.78	3.68	.69	3.66	.74	-.775	
가족에 대하여	현대가정의 역할	3.46	1.09	3.49	.90	3.48	1.00	-.381
	가족의 중요성	3.78	1.07	3.68	.99	3.73	1.03	1.193
	가족의 유형	3.43	.96	3.27	1.00	3.35	.98	1.992*
	사회변화에 따른 부모의 역할	3.65	1.05	3.68	.98	3.66	1.02	-.339
	가정 법률상식	3.33	1.08	3.44	.95	3.38	1.02	-1.245
	전체	3.53	.84	3.51	.80	3.52	.82	.290
부모 역할 및 책임	부모역할의 중요성	3.70	1.08	3.90	.91	3.80	1.01	-2.479*
	부모로서의 책임	3.79	1.06	3.83	1.00	3.81	1.03	-.475
	아버지역할 수행방법	3.79	1.11	3.92	.98	3.85	1.05	-1.569
	어머니 역할 수행방법	3.64	1.09	3.95	.99	3.79	1.05	-3.494**
	이혼 및 재혼한 가족에서의 부모의 역할	3.43	1.13	3.80	.97	3.61	1.07	-4.251***
	전체	3.67	.94	3.88	.86	3.78	.91	-2.826**
의사 소통	가족 간의 대화방법	3.93	1.12	4.07	.99	4.00	1.06	-1.616
	부모-자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3.96	1.05	4.12	.95	4.04	1.00	-1.849
	성격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의사소통	3.90	1.03	3.95	.93	3.92	.99	-.663
	전체	3.93	.96	4.05	.89	3.99	.93	-1.515
양육 방법	바람직한 양육태도	3.80	1.07	3.98	.86	3.89	.98	-2.105*
	아동발달지식(사회정서, 인지, 신체, 운동, 언어발달)	3.84	.95	3.92	.96	3.88	.95	-1.044
	아동영양 및 건강	3.79	.99	3.96	.93	3.87	.97	-2.066*
	성격발달지도	3.88	.98	3.96	.91	3.92	.95	-1.122
	아동학대 및 방임	3.54	1.07	3.82	.98	3.68	1.03	-3.309**
	자녀의 놀이 및 학습지도	3.78	.99	4.00	.89	3.88	.95	-2.880**
전체	3.80	1.07	3.97	.91	3.88	1.00	-2.138*	
성교육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 및 문제행동 지도	3.77	.84	3.94	.81	3.86	.83	-2.479*
	사랑과 성, 성에 대한 개념, 왜곡된 성문화.	3.81	1.07	3.81	.88	3.81	.98	-.074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	3.73	1.02	3.85	.93	3.79	.98	-1.424
	태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3.79	.98	3.93	.90	3.86	.94	-1.704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이해	3.62	1.12	3.80	.95	3.71	1.04	-2.134*
	미혼부 미혼모에 관한 내용	3.51	1.18	3.63	1.02	3.57	1.10	-1.273
전체	3.69	.92	3.80	.80	3.75	.86	-1.545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생들은 ‘가족에 대하여 영역’의 하위 내용을 ‘가족의 중요성(M=3.73, SD=1.03)’, ‘사회변화에 따른 부모의 역할(M=3.66, SD=1.02)’, ‘현대가정의 역할(M=3.48, SD=1.00)’, ‘가정 법률상식(M=3.38, SD=1.02)’, ‘가족의 유형(M=3.35, SD=.98)’,의 순으로 답을 하였다. 남녀 대학생들은 ‘가족에 대하여’의 하위영역에서 ‘가족의 유형($t=1.99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족에 대하여’의 영역에서는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290, p>.05$).

대학생들은 ‘부모역할 및 책임’의 하위내용을 ‘아버지 역할 수행방법(M=3.85, SD=1.05)’, ‘부모로서의 책임(M=3.81, SD=1.03)’, ‘부모역할의 중요성(M=3.80, SD=1.01)’, ‘어머니 역할 수행방법(M=3.79, SD=1.05)’, ‘이혼 및 재혼한 가족에서의 부모의 역할(M=3.61, SD=1.0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녀 대학생들은 ‘부모 역할 및 책임’의 영역에서 ‘부모역할의 중요성($t=-2.479, p<.05$)’, ‘어머니 역할 수행방법($t=-3.494, p<.01$)’, ‘이혼 및 재혼한 가족에서의 부모의 역할($t=-4.251, p<.001$)’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모역할 및 책임’의 영역에서는 남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826, p<.01$).

대학생들은 ‘의사소통’ 영역의 하위내용을 ‘부모-자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M=4.04, SD=1.00)’, ‘가족 간의 대화방법(M=4.00, SD=1.06)’, ‘성격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의사소통(M=3.92, SD=.99)’의 순으로 답하였다. 남녀 대학생들은 ‘의사소통’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t=-1.515, p>.05$).

다음으로 대학생들은 ‘양육방법’의 하위내용을 ‘성격 발달지도(M=3.92, SD=.95)’, ‘바람직한 양육태도(M=3.89, SD=.98)’, ‘아동발달지식(M=3.88, SD=.95)’, ‘자녀의 놀이 및 학습지도(M=3.88, SD=.95)’,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 및 문제행동지도(M=3.88, SD=1.00)’, ‘아동영양 및 건강(M=3.87, SD=.97)’, ‘아동학대 및 방임(M=3.68, SD=1.03)’의 순으로 답하였다. 남녀대학생들은 ‘양육방법’영역의 하위영역에서 ‘바람직한 양육태도($t=-2.105, p<.05$)’, ‘아동영양 및 건강($t=-2.066, p<.05$)’, ‘아동학대 및 방임($t=-3.309, p<.01$)’, ‘자녀의 놀이 및 학습지도($t=-2.880, p<.01$)’,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 및 문제행동지도($t=-2.138,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양육방법의 영역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2.479, p<.05$).

대학생들은 ‘성교육’의 하위내용을 ‘태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M=3.86, SD=.94)’, ‘사랑과 성·성에 대한 개념·왜곡된 성문화(M=3.81, SD=.98)’,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M=3.79, SD=.98)’,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이해(M=3.71, SD=1.04)’, ‘미혼부모에 관한 내용(M=3.57, SD=1.1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녀 대학생들은 ‘성교육’영역의 하위영역에서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이해($t=-2.13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교육’영역에서는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t=-1.545, p>.05$).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요구도에 있어서 가족유형에 관한 내용은 남자 대학생들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바람직한 자아안식 및 정체성이나 부모역할의 중요성 및 부모의 역할, 어머니 역할 수행방법,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여자 대학생들의 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부모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예비부모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요구정도를 파악하여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역할에 성공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부모 교육실시를 위한 프로그램구성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부모기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가 되기 위한 선택조건들과 부모기에 대한 인식, 부모와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조사하였다. 결혼의 선택 여부에서는 94.8%의 대학생들이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95.2%의 대학생들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결혼 선택여부와 자녀 출산여부에서 남녀 대학생간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95%인 대부분의 남녀 대학생들이 결혼을 할 것이며 결혼 후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자녀의 수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원하는 대학생들이 89.6%로 조사되었다. 유경애(2003)의 연구에서는 2명 이상 자녀를 원하는 대학생들이 44.7%인 것과 비교하면 기대하는 자녀의 수가 많이 증가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에 직면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성별에 있어서 ‘성별은 상관없다’가 75.8%로 조사되었고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가 13.1%로 조사되었다.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가 나은경(1993)의 연구에서는 19.5%였고, 유경애(2003)의 연구에서는 15.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점차적으로 그 비율이 줄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991년 40.5%, 1997년 24.8%, 2003년 14.1%, 2006년 10.1%로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아들, 이제 없어도 그만”, 2007) 남아 선호사상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가 되려는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이타주의적 동기, 도구적 동기,宿命론적 동기, 자아도취적 동기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나은경(1993)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응답비율의 순서가 일치한다. 이는 10여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부모가 되려는 동기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또한宿命론적 동기, 이타주의적 동기, 자기도취적 동기에서는 남여대학생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여 대학생들의 부모가 되고자하는 동기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가 되려는 동기 중宿命론적 동기가 남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고, 이타주의적 동기와 자아도취적 동기가 여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부모가 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자녀를 통해 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宿命론적 동기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려는 이타주의적 동기와 다른 성인들처럼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동료의식을 느끼는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자아도취적 동기가 여학생들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해 남여 대학생들은 ‘부모가 똑같이 책임을 진다’,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아버지가 일부 담당한다’, ‘아버지가 주로 담당하고 어머니는 일부 담당을 한다’, ‘아버지가 담당한다’의 순으로 응답하여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지은, 2000; 유경애, 2003; 정미라

외, 1995; 황윤세, 2005)와 그 순서에서는 일치하나 세부적인 영역에서인 ‘부부가 똑같이 책임 져야 한다’가 68.7%로 조사되어 정미라 외(1995)의 91.3%, 김지은(2000)의 97.6%, 유경애(2003)의 90%, 황윤세(2005)의 83.3%보다 적은 수의 대학생들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양육의 책임에 있어서 남여 대학생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부모가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학생은 62.4%인데 반해 여학생들은 75.4%였고,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아버지가 일부 담당한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35.6%인데 반해 여학생은 21.0%이었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남학생이 더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부부공동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전히 자녀양육이 어머니의 주요 책임이라는 변하지 않는 인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하면 상관없다’, ‘아빠가 협조하면 상관없다’,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나 교육기관이 있으면 상관없다’, ‘자녀교육에 지장을 준다(36명, 6.2%)’, ‘모르겠다(15명, 2.6%)’의 순으로 응답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교육에 지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은 6.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김지은(2000)의 연구에서 11.0%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여 대학생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남여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대학생들은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 ‘자녀학습지도의 역할’, ‘자녀보호의 역할’, ‘훈육적 역할’,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 역할’, ‘경제적 지원의 역할’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남여대학생들 간에 어머니의 역할 중 ‘경제적 지원의 역할’과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 역할’에서 남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어머니의 역할 중 경제적 지원을 2.9%,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의 역할을 8.3% 선택한 반면, 여학생들은 경제적 지원을 6.4%,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의 역할을 1.2% 선택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결과를 선행연구(유경애, 2003; 정미라 외, 1995)와 비교해 보면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 역할은 4.74%로 정미라 외(1995)의 8.4%, 유경애(2003)의 6.0%에 비교하면 감소하고 있고,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도 26.77%로 정미라 외

(1995)의 35.4%, 유경애(2003)의 37.3%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훈육적 역할은 11.57%로 정미라 외(1995)의 7.5%, 유경애(2003)의 8.7%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대학생들은 ‘경제적 지원의 역할’, ‘훈육적 역할’, ‘자녀보호의 역할’,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 ‘자녀학습지도의 역할’,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 역할’,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의 순으로 대답하였으며, 남녀 대학생들 간에 아버지의 역할 중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 ‘자녀보호의 역할’에서 성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역할 중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을 19.0%, 자녀보호의 역할을 14.9% 선택한 반면, 여학생들은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을 13.9%, 자녀보호의 역할을 19.7% 선택하였다. 이는 남학생들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전의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던 양육태도에서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유경애, 2003; 정미라 외, 1995)와 비교해 보면 사회전통 가치관의 전달 역할은 4.58%로 정미라 외(1995)의 10.5%, 유경애(2003)의 11.0%에 비교하면 감소하고 있고,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은 3.79%로 정미라 외(1995)의 0.6%, 유경애(2003)의 0.0%에 비교하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데서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됨을 반영한다. 이전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고 사회적가치관을 전달하는 가정교육을 담당하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녀의 의논상대자가 되어 주는 감성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던 데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이성적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하게 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고, 아버지 또한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자녀의 건강이나 영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예비 부모인 대학생들의 부모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본 결과 전체 대학생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55.6%가 긍정적으

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50%이상이 반응한 항목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이 10개 항목이었고 부정이 8개 항목이었다. 이는 나은경(199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15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대학생의 일반적 통념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녀 대학생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11문항을, 여학생은 10문항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가 된다는 것을 다소 낭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낭만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농경사회와 같은 고전사회에서는 아마추어 부모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전문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에 적합한 올바른 양육관과 양육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대학생의 자녀양육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인 경향이 49.8%가 아동중심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고, 50.2%가 성인중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13개의 문항 중 응답자의 50% 이상이 반응한 항목은 아동중심적인 견해가 6개의 항목에 나타났고, 성인중심적인 견해가 7개의 항목으로 나타나 다소 성인 중심적인 반응이 높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연구대상인 대학생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녀대학생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7문항을, 여학생은 5문항을 아동 중심적으로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녀양육에 대해 아동 중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미 성인이 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원영(1984)의 연구에서 성인 중심의 자녀양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나은경(1993)의 연구에서는 성인 중심적인 견해에서 아동중심적인 견해가 유사하게 조사된 결과에 견주어 볼 때 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던 경향에서 유아를 개별성을 지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에게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부모됨과 자녀양육에 대한 욕구가 구체화 될 수 있는 시기의 정규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부모교육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때 훌륭한 부모의 자질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장차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둘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내용에 대한 요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생들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의사소통’, ‘양육방법’, ‘부모역할 및 책임’, ‘성교육’, ‘자기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의 순으로 교육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아동발달과 관계된 아동에 대한 지식과 부모역할에 대한 내용을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선호한다는 유경애(2003)의 연구와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양육방법, 부모 역할 수행, 아동행동지도방법이 예비부모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정미라 외(1995)의 연구,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아동의 이해 및 양육방법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김지은(2000)의 연구 결과, 자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자녀양육문제, 태교, 바람직한 양육태도 등을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꼽은 전선영(2001)의 연구결과와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은 예비부모교육에서 자신들이 장차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 할 때 필요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인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부모로서의 역할 및 책임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은 예비부모교육에서의 이러한 교육내용들이 자신들의 부모역할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기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이 장래 수행할 부모역할이나 올바른 자녀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비부모교육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녀 대학생의 자녀양육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아동 중심적인 견해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 남녀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녀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보다는 남녀에 차이에 따른 비교 결과에 기초한 남녀에 따른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둘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이 장차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

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방법 특히 부모-자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나 양육 방법으로 자녀의 놀이지도,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 및 문제 행동 지도, 성격발달 지도에 같은 일상적인 자녀 훈육법처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높은 비율로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있어서도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적합한 부모교육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남녀에 따라 다른 요구에 부합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는 예비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부모로 성장하기 위해 자녀야 할 기초적인 자질과 태도를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좀 더 포괄적으로 바람직한 부모교육은 사회에 만연한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는 남녀 성별에 의한 차이만을 보았을 뿐 부모역할에 대한 다양한 인식차이의 변인이 될 수 있는 개인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적인 배경을 고려하는 연구와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실제 자녀의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부모기, 예비 부모교육,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 고 문 헌

- 강희은. (2002).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기독교청년들의 요구도 조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선주, 조은숙, 옥선화. (1998). 부모기전이기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 부모되는 길라잡이. *대한가정학회지*, 36(5), 167-185.
- 굿네이버스, 수능 치른 고3 15만여명 대상 예비부모교육. (2007, 11, 27). *국민일보*, 자료검색일 2010, 4, 8, 자료출처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920732661&cp=nv>
- 김명희. (2000). *현대사회와 부모교육*. 서울: 학문사.
- 김정미. (2004).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유아교*

- 육학논집**, 18(4), 65-85.
- 김정미. (2005). 대학생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구성. **대한가정학회지**, 43(3), 233-249.
- 김지신, 정승원, 최미경. (199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41-53.
- 김지은. (2000).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3), 47-58.
- 김현정. (2002). 예비부모교육의 수강여부가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역할지각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경. (1993). 고등학생의 부모기에 대한 이해와 유아기 자녀교육에 관한 태도 연구-대전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영. (199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아들, 이젠 없어도 무관 (2007, 10, 29). **연합뉴스**. 자료검색 일 2010, 7, 21,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800053>
- 유경애. (2003). 오산대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학생생활연구**, 8, 61-78.
- 유안진, 신양재. (1993).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 유효순, 지성애. (2004).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윤기영, 전효숙, 박상임, 이미숙, 이석란, 박수옥. (1998). 대학생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6, 57-82.
- 이병래. (1991). 결혼전 여성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래. (2003).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유아교육연구**, 23(1), 133-152.
- 이원영. (198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유아교육연구**, 5, 101-140.
- 이재연, 김경희. (1998). 남녀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7, 103-115.
- 이정은. (2006). 성인전기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인식도 조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순. (198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관 및 자녀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 임원신. (2004). 부모놀이치료를 이용한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3(2), 215-224
- 전선영. (2001).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6(3), 73-95.
- 정미라, 이희선, 배소연. (1995). 대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15(1), 179-197.
- 정은숙. (2002). 대학생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 (2004). 예비부모교육 집단 상담이 대학생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양미, 이태섭. (1999). 안양대학교 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 **인문과학연구**, 7(1), 232-252.
- 통계청. (2007). **국가통계포털**.
- 황윤세. (2005). 대학생들의 부모됨에 대한 이해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 **학생생활연구**, 11, 89-107.
- 허혜경, 김혜수. (2002).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허희순. (2003).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k, L. E. (2002). *Infants and Children: Prenatal Through Middle Childhood.(4th Ed.)*. New York: Allyn and Bacon.
- Darling, N. (1999). Parenting Styles and Its Correlates in ERIC Digest Illinois Eric Clearinghous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trieved June 21, 2010, from <http://www.atthealth.com/Practitioner/ceduc/parentingstyles.html>
- Doetsch, P. (1990). Reducing the risk for child abuse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parenting program for teenage mothers. Ed. D. Practicum, Nova University, Florida.
- Groom, P. D. (1999). *Prediction of Parenting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ulsa, Oklahoma.

- Hanson, S. M., Heims, M. S., Julian, D. J., & Sussman, M. B. (1994). Single parent families: Present and future perspective. *Marriage & Family Review*, 20, 389-410.
- Hoffman, L. W., & Maris, J. D. (1979).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3), 583-596.
- Roundtree, D. J. (1987). Implementing parenting workshops with SOLVE adolescent mothers. Practicum paper, Nova University, Florida.
- Weinstein, E. R. (1994). Decreasing sex bias through education for parenthood or prevention of adolescent pregnancy: A developmental model with integrative strategies. *Adolescence*, 29, 723-733.

접 수 일 : 2010. 05. 04.
수정완료일 : 2010. 07. 13.
게재확정일 : 2010. 07. 15.